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외국인 직접투자 2년 연속 감소
- 원/엔 환율, 외환 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

경영 노트

-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 논란

사회 트렌드

- 웹버(Webver)족의 등장
- 젊은층 대다수가 과거 후회

저널 브리프

-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

洗心錄

- 인생의 성공 방정식

□ 외국인 직접투자 2년 연속 감소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4년 이래 2년 연속 감소하면서 2006년에는 전년 대비 2.9% 하락한 11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 대비 37.1%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20.4% 감소하였음
 - 투자 형태별로는 Greenfield형(공장 및 사업장 설립) 투자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으나, M&A형 투자는 18.3% 감소하였음
 - 2007년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내외 여건은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부품소재 등 산업구조 고도화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 체계와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원/엔 환율, 외환 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

- 원/엔(100엔당) 환율이 1월 3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70원대에 진입하여 779.55원을 기록함
 - 원/엔 환율의 하락은 달러화에 대해 원화가 엔화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달러화에 대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연말과 연초 수출기업들의 달러화 환전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한편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세 확산에 따른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일간 금리차 축소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 원/엔 환율 하락은 제3국에서 한·일간 수출 경합도를 심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단기적으로는 물류비용 절감 등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함

□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파견 논란*

- 2년여 간 논란을 빚어온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의 파견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됨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등은 지난 2005년 1월 현대자동차와 102개 사내협력 업체 대표 등 128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음
- 사내 협력업체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사결정권이 협력업체에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재계는 도급 관행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계로서는 협력업체를 이용하면 경영 여건에 따라 고용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해고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계는 기업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고용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함
 -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작년 12월 GM대우차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측과 협력업체에 대해 벌금 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에 견주어 볼 때 이례적임

< 현대차와 하청업체간 불법파견 여부의 판단 차이 >

검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 독립적으로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를 하는 적법한 하청업체 - 취업 규칙을 별도로 작성하고 4대 보험을 독자적으로 납부하는 등 실제 있는 독립사업자	하청업체 지위	-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하도록 하는 파견업체 -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 또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 지위	-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 파견 근로자)
- 노무관리상 하청업체 근로자가 현대차에 종속되지 않음	현대차와 하청업체 근로자의 관계	- 노무관리 등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는 현대차에 종속됨
- 적법한 도급(외주의 개념)	현대차와 하청업체의 관계	- 불법 파견

- 이번 판결이 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해소한 것은 아니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 법안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적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2년 이상 일한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

* 동아일보(2007.1.4)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 편집함

□ 웹버(Webver)족의 등장

■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는 정보화된 노인층을 의미하는 웹버족(Webver: Web+Silver)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감이 생겨 생활이 즐거워졌다’(98%), ‘친구가 많아졌다’(91%), ‘몸이 건강해졌다’(89%) 등 정보화 교육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90%의 응답자는 ‘자녀나 손자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해 정보화가 세대 격차 및 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 노인 정보화는 노인 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인터넷 신수요 창출 등 사회·경제적 부양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응답자 중 댓글 경험자는 54%, 전자상거래 경험자는 27%이며, 특히 21%의 응답자가 정보화 교육으로 ‘취직 등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응답해 정보화가 노인들의 사회재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젊은 층 대다수가 과거 후회

■ 20~30대 성인 남녀의 98%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이들 응답자의 60.7%는 학벌, 직장, 연봉 등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86.7%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보다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응답함

■ 과거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절반이 넘는 응답자(51.6%)가 ‘공부(일류대학 진학)’라고 응답함

- 이밖에 ‘전공·직업변경’(21.6%), ‘재테크·부자 되기’(8.0%), ‘공기업·대기업으로 이직’(5.7%) 등 각박한 현실이 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됨

□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

- (개요) 최근 일본과 함께 경기 침체의 대명사로 불리던 유로존 지역(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중심)의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기업 수익 증가와 경기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이는 실업률 감소와 내수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내고 있음
 - 2006년도 유로존 12개 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7%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에 비해 낮지만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임
- (경제 회복 원인) 수년간 유럽의 환자로 취급받던 독일이 유럽 경제의 부활을 이끌고 있으며, 독일 경제가 주변국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구조조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독일 기업들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특히 기계류와 산업장비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됨
 - (노동법의 틈새공략) 혹독한 실업과 경기 침체에서 독일 기업들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회사 수익과 연계한 임금 지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함
 - (투자 확대) 유럽 국가 간의 교역 증대 및 투자 확대는 미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위험 요소) 유로화 강세와 EU 기준에 따른 세금 인상이 위험 요소임
 - (유로화 강세) 최근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어 성장 전망에 어두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미 2003~04년에 달러에 대한 유로화 강세가 유럽 경제 회복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음
 - (세금 인상) 독일과 이탈리아는 EU 기준에 따라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증세를 추진 중에 있으나, 1997년 부가세를 인상함으로써 일본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었던 교훈이 지적되고 있음
- (시사점)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정책적 뒷받침을 활용하여 내수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해야 함
 - 유럽경제의 선전은 미국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7.1.8)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인생의 성공 방정식

27세에 전자부품회사인 교세라를 창업하여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키운 입지전적인 기업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혼다기연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 소니의 창업자인 이부카 마사루를 잇는 일본 벤처기업의 살아있는 신화다. 열정경영, 도덕경영, 창의경영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이며, ‘아메바경영’, ‘카르마(業)경영’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저서 <소호카의 꿈>에서 인생의 성공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인생의 결과 = 능력 × 열의 × 사고방식

‘능력’은 머리가 좋다는 것만이 아니라 운동신경이 있다거나 건강하다든가 하는 신체적 능력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타고나면서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열의’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정할 수 있다. 능력은 높지 않지만 열의가 높을 경우 선천적 능력은 개선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고방식’인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와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 그만큼 인생도 잘 풀린다.

이나모리 회장은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능력’이나 ‘열의’는 0에서 100점까지가 있지만, 사고방식은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까지 있다. 세상을 비관하고, 비뚤어지게 보고, 원망하며 살아가면 이것은 마이너스 사고방식이 된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인생의 결과는 전부 마이너스가 된다. **‘능력’이 뛰어나고 열의까지 강하다 해도 세상을 비관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부정하며 산다면 능력이 있고 열의가 있는 만큼 인생의 결과는 오히려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가 된다.** 반대로 훌륭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살겠다는 플러스 사고를 가진다면,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훌륭한 인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공격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 니체 (1844~1900) : 독일의 철학자